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3월 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1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박선연 -

제가 어릴 적 교회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십대 초반의 젊고 예쁜 새댁으로 저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전도하시는 구역장님의 인도로 은혜와진리교회에 나와 결신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며 또 주일에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어머니,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교회에 따라다닐 때,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구역장님들과 복음전도지를 접으면서 함박웃음을 터뜨리시던 모습, 교구버스 안에서 구역의 연로한 성도님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살피며 환한 얼굴로 살뜰히 돌보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어린 딸이 지금 은혜와진리교회의 구역장이 되어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옛날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모습처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때처럼 어머니를 따라간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 밖 정원이나 운동장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거나 성전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곤 했는데, 그날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어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엄마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하

나님, 우리 아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아빠도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눈물을 펄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날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때의 심정처럼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의 노력과 저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나중에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도 구역원들의 가정 복음화와 불신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간절히 바랬음에도 제가 앞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예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대학교 1년 휴학 기간을 갖고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교회 성도와 청년들이 전도할 때 동행하여 시골 오지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돌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두 명이 짝을 지어 다니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며 복음을 전할 때, 장난꾸러기인 아이가 심하게 장난을 치고 방해하면 다른 청년이 그 아이의 관심을 받아주고 따로 돌보며 제가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전도지의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청년이 또 옆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아이들이 그림을 보며 설명을 잘 듣게 해주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전도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 저는 안양성전 아가페 성전에서 많은 청년들의 축복속에 결혼예배를 드리고 소망했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면서 교회학교에서 같은 성경공부를 하며 자랐고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같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은 물론 여러 면에서 대화가 원활하고, 또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 대한 기억과 청년봉사교회에서의 추억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남편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가운데 주일에

교회학교에서 온전하게 봉사하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줍니다. 남성구역장으로서 주중에 장거리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와 열심히 구역예배를 인도합니다. 이처럼 둘이 같은 마음, 같은 열심을 갖지 않고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희 부부는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곤 합니다.

더욱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구 전도 사님의 인도하에 같은 구역이 되어 서로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순서를 맡아 구역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위해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제작해 주신 아동구역공과 교재로 자녀들 먼저 아동구역예배를 드린 후에, 저희 부모들이 구역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육아용품 등 비슷한 또래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나누고 또 교역자님의 심방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으니,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 신령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10) ‘나의 소망, 어릴 적부터 나의 의지가 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성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8단원 : 성도의 영적 싸움)

(제38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결말

- **본문** : 요한일서 2:18-29
- **요절** :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요일 2:18)
- **찬송** : 384장(새찬송가 585장), 391장(새찬송가 353장)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써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요일 2:18)는 말씀은 그의 생전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말해 주며 아울러 성도들의 경계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오늘날에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1.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악의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 8:4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사단에 속한 주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속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고 사단에게 속한 자였듯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외관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한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성도인 것처럼 행세할지라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이단 사설을 전파하며, 우상숭배를 조장하여 영적 음행을 행하게 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부추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짓을 자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맺는 악한 열매로 인하여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사단)이 조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후 6:15~16).

2. 성도들은 진리로써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만 주의해 보면 자기들의 거짓된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 2:22)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써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가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나라는 거짓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복음의 진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간파하여 물리쳐야 합니다(계 2:2).

성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입고 간교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치며 살아갑니다(요일 2:27).

또한 성도들은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주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거룩한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결정적인 종말의 때에 사단의 화신(化身)으로 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전위부대들입니다.

장차 임할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행위를 행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서 가공할 권세를 부여받아 정치와 군사, 경제는 물론이요 종교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며 적그리스도 숭배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행위와 생명이 결코 길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라고 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운명이 이미 멸망 받기로 정해져 있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일수록 적그리스도들의 도전이 더욱 거세어질 것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누구도 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